

Neonatal Reflex

* 반사 : 신경기능 상태의 중요한 자료

- **rooting reflex** : 입가의 볼을 살짝 건드리면 입이 그쪽으로 향하며 젖꼭지로 찾아 물때와 같이 입을 벌림. 출생 후 3~4개월, 잘때는 7~8개월에 소실된다. 반응이 없거나 약하거나 비대칭적이면 CNS의 기능 소실이나 기능 이상을 의미할 수 있다.
- **sucking reflex** : 신생아의 입술을 건드리거나 무엇을 갖다 댄으로써 일으킬 수 있다. 흡철은 주기적이어야 하며 젖이 나오게 할 수 있어야 한다. 생후 6개월에 감소하기 시작하며 자극이 사라지면 소실된다.
- **swallowing reflex** : 혀의 후부에 음식이 있을 때, 자동적으로 일어남, 흡철과 연하를 조화시키는 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구역질, 기침, 재채기 반사는 기도를 청결히 하려는 보호기능이다.
- **grasp reflex** : 손바닥을 누르면 손가락을 구부려 잡는다. 3~4개월경 사라짐. 발바닥에 무엇을 대면 발가락을 구부려 잡으려는 반사가 일어난다.
- **traction response** : 양와위에서 아기의 손목을 잡고 앉은 자세로 서서히 당길 때 볼 수 있다. 팔의 신전과 약간 머리를 드는 반응이 나타난다. 4개월에 소실된다.
- **moro reflex** : 중추 신경계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단일 지표로 큰소리나 요람을 쳐서 아기를 놀라게 할 때 일어난다. 양와위로 누인 후 팔을 잡고 머리는 검사대에 그대로 두면서 어깨를 조금 들었다가 팔을 놓으면 어깨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관찰 가능하다. 첫단계에서는 팔꿈치를 빨리 굴곡시키고 어깨에서 상지는 외전시키며 전박을 신전시키고 손가락과 다리를 신전시키며,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깨에서 팔을 내전시키고 복부로 다리를 가져온다. 반응이 완전한지 대칭적인지 관찰하여야 하며 생후 3~4개월 경에 사라진다.
- **yawn, stretch, hiccough reflex** : 자연적으로 나타나며 산소요구와 가스배출과 관련있다. 딸꾹질은 정상임을 알려주지만, 약물중독의 모성의 아기는 yawn, 재채기, hiccough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.

- **tonic neck reflex** : 양와위로 누이고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그쪽의 팔 다리는 신전되고 반대쪽 팔 다리는 굴곡된다. 이것이 펜싱하려고 하는 자세와 비슷하다고 하여 펜싱자세라고도 하며 3~4개월경 사라지고,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대체된다.
- **babinski reflex** : 발바닥을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자극하면 엄지발가락을 등쪽으로 구부리며 나머지 발가락은 부채꼴로 편다. 보통 3개월까지 존재하지만 아기가 걷게 되는 10~17개월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.

